

경제

광주롯데백, 본사 유능인력 영입·매장 리뉴얼
최고 쇼핑타운 '제2도약'

봄 정기세일 매출 전년보다 7% 늘어

“2012년 제2도약하는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지켜주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살리기에 앞장 선 강우진(40) 롯데백화점 광주점 남성팀장의 각오다. 강 팀장은 지난 3월말 광주점에 부임,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곧바로 4월 진행한 아웃도어 기획전에서 매출액 증가를 전국 1위를 이끌어 낸 것. 강 팀장은 광주점으로 오기 전 롯데백화점의 두뇌역할을 하는 본사 상품본부에서 선임상품기획자로 활약한 핵심 인재다. 순천 출신인 강 팀장은 “신인사원으로 1998년에 광주점 오픈을 준비했었기 때문에 광주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며 “10년 사이 상권위축 등 영업환경이 열악해진 것이 안타깝지만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해 행복한 백화점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점의 매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본사 상품본부에서 파견된 팀장은 강 팀장을 비롯해 김동일 집합팀장, 김대호 가정팀장 등 3명이다. 또 20년 동안 영업매장에 근무해 ‘백화점 영업통’으로 불리는 유재수 여성팀장과 임항규 식품팀장 등 베테랑 팀장들이 똬처 광주점 살리기에 나섰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보강된 영업팀장들을 주축으로 ▲역량 강화 ▲매장 구성 변화 ▲다양한 기획행사 진행 등을 통해 지난 봄 정기세일 매출 실적이 전년 대비 7% 가량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또 고급 백화점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지하 1층에 ‘물가안정

실속형 행사장’을 열어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이면서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점이 이처럼 제2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데는 신인 롯데백화점 대표이사사의 각별한 광주시장 때문에 가능했다고 백화점 측은 설명했다. 1998년 광주점 오픈 당시 초대점장을 지낸 신 대표이사사 광주점의 체질개선을 위해 추진력이 강한 튜닝형 점장을 구원투수격으로 발탁한 것을 비롯해 광주점 제2도약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튜닝형 광주점장은 “이번 팀장급 인사는 백화점 전 점포를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라며 “올해를 제2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공격적이고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쳐 명실상부한 지역 백화점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외출후엔 얼굴에 수분을

22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2층 시슬리 화장품 매장에서 남성 직원이 야외활동 후 피부를 진정시켜 주는 ‘에프티 케어’ 방법을 고객에게 소개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지역 무역수지 2억7천만불 흑자

FTA 효과...4월 대미 수출 광주 13%·전남 36% 늘어

지난달 광주·전남의 무역수지가 수출 증가로 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4월 광주·전남의 무역수지는 전남의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 지역 무역수지는 1% 감소한 7억3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지역 무역수지는 대미, 중동 수출증가에 힘입어 전월 무역수지 적자보다 37% 개선된 4억65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체 무역수지는 전월보다 2억6400만달러 증가한 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의 수출은 전월 대비 1% 감소한 11억3100만달러, 수입은 1% 감소

한 3억9600만달러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일본, EU, 중동 지역 수출은 증가한 반면 동남아 지역과 중국에 대한 수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일본, 중국, EU 지역은 증가하고 미국과 동남아 지역은 감소했다. 광주의 주요 수출 품목은 타이어, 가전제품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는 감소했으며 수입은 기계류와 정밀기기, 철강재는 증가했으나 반도체, 인쇄회로, 원편 등은 감소했다. 반면 전남지역 수출은 전월 대비 19% 증가한 37억4600만달러로 수입은 전월 대비 8% 증가한 42억1100만달러를 기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역별로는 동남아, 미국, 중남미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일본과 중국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수입은 중동과 동남아 지역이 증가했고 EU, 미국, 일본은 줄어 들었다. 전남 지역 수출 품목이 크게 증가했고 수입은 원유와 철강이 증가한 반면 석탄과 석유제품은 감소했다. 한편 지난 3월 15일 발표된 한미 FTA는 광주·전남 지역의 수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전남 지역의 한미FTA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의 대미 수출액이 전월 대비 13% 증가한 3억6400만달러, 전남은 36% 증가한 2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광주·전남 지역 모두 대미 수입액은 각각 16%, 23%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서민금융 이용 조건 완화

금감원, 소득증빙 간소화

바퀴드림론과 햇살론, 미소금융재단의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의 지원 조건이 지금보다 더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바퀴드림론의 지원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햇살론 이용자 중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소득증빙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소금융의 재산 요건과 채무 비율 기준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발굴할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원의 법안카드 포인트를 모아 기금을 조성해 사금융 피해자에게 지리료 대출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또 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해 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사금융 피해자의 법률 상담과 소송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사금융 피해유형별 민·형사 소송절차와 표준고소장 등 매뉴얼을 작성해 사금융 피해자의 법적구제 절차를 돕기로 했다. /연합뉴스

주식인구 첫 500만 돌파

국내 주식투자인구가 작년 말 기준으로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인구 10명 중 1명, 경제활동인구 5명 중 1명꼴이다. 또 0.6%에 해당하는 10만명 이상 대량보유자가 시가총액의 75.5%를 차지했다. 한국거래소는 작년 말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723개 상장법인과 코스닥시장 1014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식투자인구가 전년의 479만명보다 10.2% (49만명) 늘어난 528만명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체 인구의 10.6%, 경제활동인구의 21.2%를 차지한다. 전년 말보다 각각 0.9%포인트와 1.7%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작년말 주식투자인구는 1995년 243만6000명과 비교하면 16년 만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437만명, 코스닥시장 191만명, 기타 10만명이었다. 투자자 성별을 보면 여성비중이 39.2%로 전년 말보다 0.3%포인트 늘었다. 평균연령은 47.4세로 0.4세 높아졌다. /연합뉴스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경기극복 물가안정프로젝트' 일환으로 최근 지하 1층에 오픈한 '물가안정 실속형 행사장' 모습.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정비업자 보험사기 가담맨 사업 취소

국토해양부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정비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가담해 거짓으로 자동차를 정비하는 자동

차 정비업자는 앞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그동안 계약서와 명세서를 부정 발급해 보험료를 청구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연합뉴스

형사처벌 이외에 등록취소,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해 각각 다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과 절차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자전거 캐리어와 같은 외부장치를 자동차 뒤에 부착하는 경우 별도 외부장치용 번호판도 부착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코스피가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30포인트 가까이 반등, 1820선을 회복했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일보다 1.64%(29.56포인트) 오른 1,828.69로 마감했다. 지수는 1,825.82로 출발해 장 후반에 1,830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외국인 이 장 초반 순매수를 보이다

가 후반에 순매도를 지속하고 프로그램 매물도 대거 나오는 바람에 수급 불안이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폭이 후반으로 옴서 커졌다. 중국 원자바오(瀛家寶) 총리가 전날 경기회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발언해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됐다. 유럽 특별 정상회의에서 모든 경제성장 부양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독일 재무장관의 최근 발언도 호재로 작용했다. 외국인 순매입은 순매도였다. 코스닥지수는 전일보다 2.80%(12.56포인트) 오른 461.45로 마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29.56P ↑ ... 코스피 1820선 회복

Large advertisement for '자유투어' (JAU TOUR)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to destinations like China, USA, Europe, and Japan. Includ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different branches.

예/약/상/담 | 북구점 267-8587 | 상무점 652-2974 | 시청점 382-3300 | 동구점 227-8255 | 하남점 954-9700 | 목포점 061-284-1000 | 광양점 061-794-8804 | 전주점 063-284-6868